

스티븐 스피버그에 보내는 경고 전시 '화제'

김기희 작가 '덴싱 히어로'展 25일까지 여수 에그갤러리서 환경문제 작품 30여점 선보 작가 노트로 경고메시지 공개

“제대로 제 이름을 불러주십사 상서를 올립니다... 감독님, 당신과 친구들이 만든 몇 편의 몹쓸 영화 때문에 제 일족과 친구들은 즐지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역의 한 설치미술가가 영화 '쥬스'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설치 작품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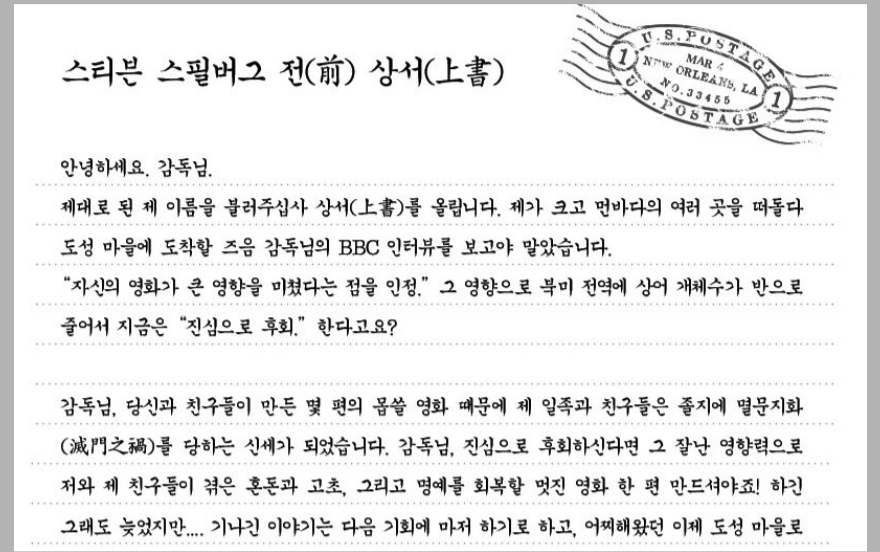
김기희 작 '스피버그에 고함'

에그갤러리 제공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오던 김기희(62) 작가는 오는 25일까지 여수 도성마을 에그갤러리에서 '덴싱 히어로'라는 주제로 여행 캐리어 설치 작품 20여점을 비롯해 도마뱀, 부엉이, 어린 왕자 비행기 등 총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면 바다를 자유롭게 뛰놀다 여수 도성마을 앞바다에 도착한 'Return to HERO(리턴 투 히어로)'는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은 쥬스, 상어, 물고기가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영화 '쥬스' 때문에 북미 전역에 상어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작가는 스피버그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작가노트 형식으로 공개했다.

인간의 편견으로 상어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전시를 위해 김기희 작가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도성마을에서 작품을 준비했다. 도성마을 주민들은 자급자족으로 축산업을 시작했는데, 김 작가는 축사 사료통에 작품을 설치해 도성마을의 역



김기희 작가가 '스피버그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

사성과 장소성의 의미를 각인시켰다. 재활용 여행 캐리어와 와이어 매쉬를 이용한 '스피버그의 고백'은 길이 3m에 가까운 상어 설치물이다. 작가는 바다 생물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식인 상어와 고기라는 식용'으로 명명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작가는 인간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살아 남은 상어를 'Return to HERO'로 명명했다. 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의 희생양이 된 바다 거북이, 갈치, 감성돔, 고릴라, 돼지, 과일, 농산물 등의 사연을 여행 캐리어에 담아냈다. 박성태 에그갤러리 관장은 "김기희 작가의 대표작 '스피버그의 고백'은 데미안 허스트가 1991년에 발표한 포름알데

히드에 넣은 수조 속 상어 작품이 연상됐다"며 "전시는 인간의 편견과 오해 속에 죽어간 생태계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경종을 울린다. 관객들이 이색적인 캐리어 작품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희 작가는 "생태환경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살생에 가까운 일을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인류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전시작품은 생경함과 모호함보다는 사실적으로 표현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무료다. 도슨트 데이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1-692-0240)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미술관 정체성' 확립한다

국가폭력·기후이상 등 이슈 주제 지역·청년작가작품 등 20개 전시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국가폭력과 기후이상 등의 이슈를 다룬 청년·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국제 프로그램도 유치해 '미술관 정체성'을 확립한다.

12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올해 미술관은 본관 기획전 8회, 하정웅미술관 3회, 사진전시관 2회, 어린이미술관 1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6회 등 총 20개의 전시를 선보인다.

먼저 본관 2층 3, 4전시실에서는 제주 4·3 특별전으로 박경훈 작가의 '4·3 기억·투쟁, 새김과 그림전'을 오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한다.

박 작가는 1993년 강요배 화백과 함께 탐라미술인협회를 창립해 제주의 4·3 미술을 이끌고 있다.

3층 5, 6전시실에서는 중진작가 초대전 '김호석:검은 먹 한 점'이 4월 4일~8월 13일까지 전시된다.

김 작가는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0년 광주비엔날레 미술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묵화의 대가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작과 더불어 5·18을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1, 2전시실에서는 오는 4월 5일~7월 30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세대간 기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후범죄 재판소(CICC):'멸종 전쟁전'이 개최된다. 이 전시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정웅미술관은 유지원(광주), 안준영(전북), 강원제(대구), 김덕희(부산)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3 위상의 변주' (3월 28일~7월 16일)를 개최한다.

이어 재일 이주작가인 김영숙의 작품을 통해 재일교포들의 애환과 희망을 찾아보는 '하정웅컬렉션 특별전-김영숙전' (7월 28일~10월 29일), 작가의 대표작과 포트폴리오를 함께 공개해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인 '청년작가 초대전' (11월 14일~2024년 3월 14일)도 열린다.

하정웅미술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회'도 진행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는 광주·전남 출신 작가 초대전인 △미디어아티스트 조명전1-신도원(5월 16일~7월 23일) △미디어아티스트 조명전 2-정정주(11월~2024년 3월)이 전시되고 △문준용 Augmented Shadow:별을 쫓는 그림자(6월~7월 30일)도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기간 중에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이스라엘 파빌리온 (4월 7일~7월 9일) △극제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디지털 별자리가 펼쳐진다.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에서는 △이주한-남도풍경(4월 5일~6월 4일)전이 마련된다.

오랜 기간 광주·전남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온 순천대 이주한 교수의 작품을 남가풍경, 무등산, 월광산수의 세 색션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어린이미술관에서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롭고 교육적인 성격의 현대미술 전시로 '이건웅-다섯 걸음(8월 15일~2024년 6월 23일)'이 개최된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 교육 등 미술관의 기본 업무와 함께 이를 지탱하는 연구 영역의 강화를 추진함은 물론 미술진흥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외공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아시아디지털 거둔과 아시아 예술정원 융합으로 미술도시 광주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월요일엔 클래식, 수요일엔 실용음악 즐겨요"

광주문화재단, 공연단체 공모 17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 등

광주문화재단은 올 한 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공연할 연주단체(개인)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월요일콘서트'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총 10회 진행되는 클래식 공연이다. 공모선정 10개 단체(개인)에게 출연료 300만원과 공연장 및 부대시설 이용 및 공연 안내 보조인력,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연 역량을 갖춘 광주지역 소재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출연진 10명 이하)이다. 60분 이상 최대 90분 이하 프로그램으로 소공연장 무대에 적합한 공연을 준비하면 된다. 장르는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 제한한다.

또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총 8회 진행되는 실용음악공연이다. 공모를 통한 공모선정 8개 단체에게는 출연료 250만원과 공연장 및 부대시설, 공연 안내 보조인력,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연 역량을 갖춘 광주지역 소재 전문예술단체(출연진 5명 내외)이다. 60분 이상 최대 90분 이하 프로그램으로 소공연장 무대에 적합한 공연을 준비하면 된다. 장르는 재즈 등 실용음악 공연으로 제한한다.

광주문화재단은 2023년 소공연장 기획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월요일콘서트'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공연 입장료를 유료(전석 5000원)로 전환하되 입장료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한다. 또 객석의 10%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나눔 좌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월요일콘서트'와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공모에 접수할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 혹은 빛고을시민문화관(bitculture.gjcf.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zlrehvk@gjcf.or.kr)로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은 100개의 객석과 분장실 2실, 조명·음향장비 및 빔 프로젝터·그랜드피아노 등을 갖추고 있고, 최종 선정 단체는 오는 31일 광주문화재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팀 (62-670-7942, 7927)로 문의. 도선인 기자